

월링스 3분기 실적 Comment



2019년 3분기 경영 실적

2019년 3분기 매출액 73억 6천만 원, 영업손실 2억 8천만 원 발생
전방산업 부진 여파에 일시적 실적 정체
인버터 등 주력 사업 이상 무, 10%대 이익률 꾸준히 유지 중

태양광에너지 리딩 기업 월링스(313760)는 2019년 3분기 개별기준으로 매출액 73억 6천만 원, 영업손실 2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. YOY 매출액 -32%, 영업이익은 적자전환 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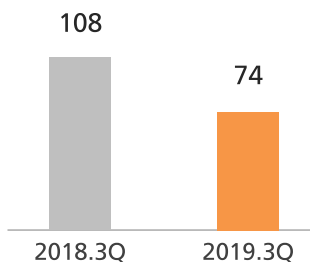
태양광 업황 부진에 따른 전방산업 침체가 실적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.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 난립, ESS 화재에 따른 불안감 확대 등 국내·외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다만 월링스의 주력 사업인 인버터 및 PCS 제품은 외생변수에 흔들리지 않고, 안정적인 사업 기초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으로 평가됩니다. 실제 인버터 제품 수요가 이어지며 견고한 매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, 10%대로 높은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. 화재 여파로 ESS 사업군에 대한 매출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향후 납품할 수주 물량이 일부 확보된 상태로 4분기에는 실적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또한 글로벌 고객사 확대 및 전방산업 회복 분위기에 맞춰 일시적 실적 정체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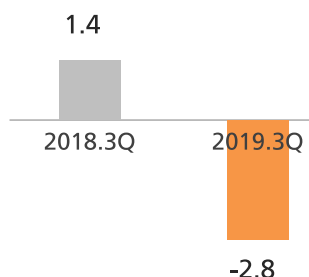
매출액

단위: 억 원



영업이익

단위: 억 원



당기순이익

단위: 억 원

